



지속적인 경제 성장, 벤처창업 활성화에 달렸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창업이 주춤하면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직업군 창출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벤처 창업. 아직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미비한 지원책 실태를 점검해 보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과거 고용창출을 주도해 왔던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은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주요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창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창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의 전반적인 창업활동은 2000년 이후 위축되었으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위 생계형 창업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 집약 업종의 신설법인 수 감소가 두드러지고 벤처형 인 기업의 수도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등 벤처기업 창업의 분위기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벤처투자 열기의 소멸과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기술창업 의욕이 위축되고 투자자금이 발생하지 않는 창업 단계에서 무형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역시 창업을 힘들게 만든다.

창업 컨설팅 사업이나 창업 자금융 지원 규모 등은 다소 증가해, 창업 지원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청(SBA)에서 민간투자, 대학 등으로 하여금 창업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창업지원정책을 쓰고 있어 창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설립된 '중소기업육성센터(SBDC)'를 통해 원스톱 창업을 지원할 뿐 아니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 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의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창업을 독려한다.

이스라엘은 첨단 분야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기술 인큐베이터(TBI)'를 가동해 우수한 기술만 갖추면 개발·생산·마케팅까지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업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그 밖에도 전세계 유대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업기업과 선진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국내 창업 현황과 선진국의 지원책

기업들이 실제 창업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기술인력 확보이다. 핵심 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창업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창업 초기의 실패 위험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고급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창업자가 창업 실무에 대한 지식, 비즈니스 마인드 등 기초 소양을 갖추지 못해 역량 부족이 문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제품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시장진입에 실패하는 것도 요인이 된다. 본격적인 매출이

창업 지원정책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하여
 창업활동과 관련된 국가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크 중소기업들에는 전 세계로부터 자금이 쇠
 도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 기술창업
 지원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첫째, 지원정책을 재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제
 고할 필요가 있다. 벤처 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지원 인프라 간의 유
 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벤
 처기업 관련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창업 관
 련 정책 부서의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요구된
 다. 창업 초기에는 기술개발 관련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간접 인프라를 조성해 정책
 방향을 전환하도록 한다.

둘째, 자생력 있는 창업기업들의 생존 토양을
 조성하고 창업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정책당
 국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안주하는
 기존의 폐단을 불식시키겠다는 '시그널'을
 발신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적절한 구조조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하고 창업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창업교육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예비창업자 육성 프로그
 램을 전문화, 내실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야 한다. 불법이나 악의가 아닌 부도의 경우
 기업파산 후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창업 실패의 경
 험을 자산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실패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기업과 당국이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창업단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금지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을 위
 한 금융지원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혁신하
 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아울러 창업 관련
 자금지원은 물론 효율적인 경영컨설팅이 가
 능한 '창업지원 전문 벤처캐피탈'을 적극 양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개발 등의 핵심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영역량 확충과 인력 확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창업기업 지원 관련 서비스마

다 독립된 기관을 유지하되, 이들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끔 'Business Link'
 를 형성해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윈스톱 지
 원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병역특례 인력 배정을 확대하고
 겸직·휴직 인정제도를 존속시키는 동시에
 외국인 채용, 파견 근로자 문제 등과 관련하
 여 폭넓게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창업 편의성을 제고하여 우호적인 기
 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창업 절차를 대폭
 축소해 창업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힘써야 하며, 소규모 창업
 을 적극 장려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창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클러스
 터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
 축을 정부 및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며 벤처
 클러스터의 발전 전략을 지역마다 차별화해
 육성한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